호남 표심잡기 '5·18 대회전'

30주년 기념식 여야 지도부 총결집 광주서 지원유세 시작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여야 지도부가 18일 광주에 총출동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호남 표심잡기에 나섰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일은 20일이지만, 5·18 기념식을 기점으로 사실상 각 정당 지도부들의 지원유세가 이날부터 시작된 셈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김무성 원내대표·정병국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된 기념식에 참석한 뒤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를 했다.

'살려라 경제! 희망캠프 중앙선대위'는 이날 정용화·김대식 광주시장·전남도지사 후보와 기초단체장·지방의원 후보, 각 당협 위원장 등 핵심간부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 민중항쟁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현장의 소리와 지역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광주·전남 지역 후보들이 정부와 한나라당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정세균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이미경 사무총장, 박주선 최고위원, 손학규 공동선대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 광주 구청장 선거캠프와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며 '민주당 바람몰이'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무소속 후보와 국민참여당 후보와의 격전이 예상되는 광주 서구와 광산구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지원사격을 벌였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김선옥 광주 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번 6·2지방선거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단일후보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또는 범법행위가 직간접적으로 확인된 사람은 배제됐다"면서 "자신의 흠을 탓하지 않고 당을 뛰쳐나간 사람에 대한 복당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곧바로 광산구 송정5일장으로 자리를 옮겨 민형배 광산구청장 후보와 함께 민생투어에 나섰다.

강운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기념식 대신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망월동 구 묘역에서 개최한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민주당 천정배·정동영 의원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한 뒤 민형배, 김선옥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하는 등 사실상 지원유세를 벌였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장원섭 광주시장 후보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지방선거 후보들은 5·18 30주년 정부 기념식에 불참하고 망월동에서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주최하는 기념식에 참석한 뒤 서구와 광산구를 돌며 강은미·황차은 시의원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강 대표는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오만하고 무능한 지방권력을 교체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광주시민들이 민주노동당의 알찬 종자로 이번 선거농사를 풍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진보신당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도 지난 17일 윤난실 광주시장 후보, 지방의원 후보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전야제에 참석해 진보신당 지지를 호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강기정(뒷줄 왼쪽) 의원이 5·18구묘역에서 열린 행사위 주최 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행사 관계자들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정치하러 왔느냐, 뒤로 가라"

5·18 30주년 구 묘역 기념식 민주당 국회의원들 망신살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가 마련한 5·18 구 묘역의 '민중항쟁 30주년' 기념식장에 지각 참석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망신을 당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행사에서 배제한 국가보훈처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지역 정서를 감안해 구 묘역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정치하러 왔느냐"는 노골적인 냉대를 감내해야 했다.

행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주시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지(구 묘역)에서 시민·사회·노동단체 회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기념식과는 별도로 '5·18 민중항쟁 제3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기념식장에는 강운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해 박주선 최고위원, 김동철 광주시당위원장, 김효석 전남도당위원장, 김재균·유선호·조영택·강기정·김영진 국회의원 등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50여 명도 참석했다. 정세균 당 대표는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가오는 선거와 지역 정서를 감안해 구 묘역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재균·강기정 의원을 제외한 강운태 시장후보와 국회의원들이 행사장에 15분 정도 늦게 도착, 앞 자리로 몰리면서 비좁은 행사장에 좌석을 마련하느라 행사가 잠시 중단됐다.

참석자 일부는 이를 보고 "여기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다. 늦게 온 국회의원들은 뒤로 가라"며 강력 항의했고, 의원들은 앉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항의가 갈수록 거세지자 일부 의원들은 "서서 보겠다"며 행사 관계자들을 달랬으나, 홀대는 계속됐다.

사회자까지 나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재야단체 대표를 일일이 호명하면서도 유독 민주당 의원들에겐 "이름은 모르겠고, 민주당 여러 의원님들 오셨습니다"라고 노골적으로 면박을 줬다. 이에 강기정 의원이 거세게 항의하자, 사회자는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이 자신들을 소개해 달랍니다. 저는 의원님들 이름을 모르겠으니 명단을 적어서 주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고 받아쳤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추도사를 하고 난 뒤에도 사회자는 "당 대표가 먼저인데, 순서가 바뀐 것 같다"며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소개하기도했다. 사회자가 기념식 도중에 "감정에 복받쳐서 말이 조금 과했다"고 사과하긴 했지만, 의원들의 표정은 끝까지 펴지지 않았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공식 기념식에 초청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지각해 눈총을 받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전남 선거인 257만653명

전국 3886만명…2006년 보다 179만명 증가

행정안전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결과,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19세 유권자 65만2217명 등 총 선거인이 3886만1763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체 인구(4997만4331명)의 77.8%에 해당하며, 2006년 4회 지방선거 때보다 179만7481명 늘어난 수치다.

광주의 총 선거인수는 남자 51만7266명·여자 54만7881명 등 106만5147명으로, 전남은 150만5506명(남자 74만986명·여자 76만4520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광주의 경우 40대가 24만3743명(22.9%)으로 가장 많았고 30대(24만2131명·22.7%), 20대(20만6142명·19.4%), 60대 이상(18만3634명·17.2%), 50대(16만8821명·15.8%) 등으로 집계됐다. 19세 유권자는 2만676명으로 파악됐다.

전남에서는 60대 이상이 45만3912명(30.2%)에 달해 고령화비율이 높음을 그대로 반영했다. 40대가 29만8979명(19.9%)으로 뒤를 이었고 50대(25만6193명·17.0%), 40대(25만3138명·16.8%), 30대(22만193명·14.6%) 등의 순이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유권자는 광주의 경우 각각 452명, 233명으로, 전남은 386명, 326명으로 집계됐다. 선거인명부는 19~21일 열람 및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26일 최종 확정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위치추적기' 사건 연루여부 당락 직결

후보 자해…곡성군수 선거 어떻게되나

한때 후보사퇴도 고려, 일부 동정론도

18일 새벽 자해를 시도, 남원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인 무소속 허남석 곡성 군수후보. /남원=위직량기자 jrwi@

무소속 허남석(55) 곡성군수 후보의 18일 자해 소동으로 곡성군수 선거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경찰서장 출신인 허 후보는 이날 경찰로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받고 후배 경찰에게 추궁을 받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자해를 한 것으로 보이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6·2 지방선거는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허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어젯밤 9시께 평상시처럼 귀가했다"며 "자해할만한 아무런 징후도 없었다"고 말했다. 허 후보도 전날 오후 광주일보 기자와 만나 위치추적기 사건과 관련, "수사 중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어쨌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안고 군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결전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허 후보는 최근 경쟁관계인 민주당 조형래 후보의 선거용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사건과 관련, 친동생을 포함해 4명이 구속되고, 또 다른 5명이 불구속 입건되자 심한 자괴감과 심리적 압박을 느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허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허 후보가 동생이 위치추적기 부착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존심과 도덕성에 크게 상처를 입고 괴로워했다"면서 "한때 후보를 사퇴하는 것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경찰이 이번 사건 연루 여부를 밝히기 위해 허 후보에게 이날 중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등 주변의 압박이 거세지자 이를 견디지 못해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 어떤 영향 미칠까=애초 곡성군수 선거는 현직 군수인 조 후보와 무소속인 허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었다. 조 후보가 현직과 민주당 프리미엄을 갖고 있지만 지난 6번의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득표력이 월등하지 못해 참신한 허 후보가 선전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위치추적기 부착 사건이 터지면서 허 후보 측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조 후보로 승부가 기운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허 후보의 자해 소동이 선거판의 변수로 떠올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허 후보가 치료 때문에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 후보의 승리가 확정적이라는 분석과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유권자 사이에 동정론이 일면서 허 후보가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됐다는 상반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